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2월 17일-으악! OT전날이다...)

1. 보고 사항

- 1)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 2) 오리엔테이션 상황 보고
- 3) 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끝. 1)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 총학생회 안에 대한 발제
- 총여학생회 위상에 관한 발제
- 논의

4)-3)-2)-0(과제-1)

2) 자치단체모임에 관하여

- 그동안의 자치단체 모임 운영

: 3월 자치단체 테이블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3) 에포레 관련 사항

(3.8) beyond 제안서 독후

3) 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총여실의 오락실화.. 글세 좀 규칙이
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랜싱

4) 세미나 합숙? 엠티? 일정을 잡아봅시다.

5) 이과대 수정. (A4 1/4) - 4면

3. 다음주에는...

1) 일단 3, 4월 정도 사업 계획과

2) 당장 총여학생회 사업 관련 선전 문제정도를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3) * 집행부의 일정 잡기

4) 자치단체 총회 제안

mr

'98년도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일정에 대한 계획안

학생회비 배분에 참여하는 기구로는 총학생회, 10개 단대학생회, 9개 특별기구가 있습니다. 의치간호대는 학생회비의 60%만이 총학생회 학생회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배분받지 않습니다. 학생회비 예산 배분은 단대학생회, 특별기구, 총학생회 및 특별공동예산으로 나누어져 배분되게 됩니다.

학생회비 배분을 책임질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고 이전 자료도 부실한 상태에서 전년도에 각 단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배분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올해 예산배분의 주 기준은 작년도의 예산배분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 배분의 구성 부분들 중 특별기구와 특별공동예산은 중운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대학생회비의 예산 배분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객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총무단회의를 통하여 중운위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일정을 제안합니다.

● 2월 셋째주

- ☞ 예산배분안 심의에 관한 일정 공유
- ☞ 특별기구의 심의 및 예산심의를 위한 방법 공유

특별기구심의안 제출 논의.

● 2월 넷째주

- ☞ 특별기구에 대한 심의 및 예산 결정

● 3월 첫째주

- ☞ 특별공동예산에 대한 예산 심의 및 예산 결정
- ☞ 단대 학생회비 배분을 위해 총무단 회의 소집

한주씩 늦춰짐.

● 3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

- ☞ 총무단 회의 및 단과대학 학생회비 배분안 확정

● 3월 둘째주

- ☞ 총무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심의 및 확정
- ☞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

학생회비의 총액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단위의 예산안과 상관없이 전년도에 비해서 파격적인 예산의 가감은 사실상 힘들고 그렇게 해서도 곤란합니다.

전년도 단대학생회비 24.83%, 특별기구 17.87%, 총학생회비 57.30%에서 $\pm 0.5\%$ 이내의 변동정도만을 인정해야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큰 틀거리 안에서 그 내부구성단위들 간의 부분적 변동사항을 심의해야 큰 폭의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 중운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속에서 계속 제출하겠습니다.

'97-1학기 학생회비 정산 내역

I. 중수입 178,052,000원

문과대학	2,808명	28,080,000원
상경대학	3,094명	30,940,000원
이과대학	1,693명	16,930,000원
공과대학	4,776명	47,760,000원
신과대학	249명	2,490,000원
사회과학대학	1,470명	14,700,000원
법과대학	941명	9,410,000원
음악대학	592명	5,920,000원
생활과학대학	698명	6,980,000원
교육과학대학	592명	5,920,000원
그린과대학	690명(60%)	4,140,000원
치과대학	338명(60%)	2,028,000원
간호대학	459명(60%)	2,754,000원
총 계		178,052,000원

II. 총지출 178,052,000원

A. 단과대 배정 총액 ; 44,121,951원

문과대학	6,514,071원
상경대학	5,895,806원
이과대학	5,148,239원
공과대학	7,147,501원
신과대학	2,710,057원
사회과학대학	4,055,403원
법과대학	3,737,731원
음악대학	2,930,494원
생활과학대학	3,224,546원
교육과학대학	2,758,103원

B. 9개 기구 배정액 ; 31,741,403원

총학생회	6,408,512원
등아리연합회	11,541,068원
언론협의회	2,273,352원
총원단	2,448,167원
소나기	2,448,167원
예비역복학생협의회	1,387,346원
풍물패협의회	2,098,411원
총일연세TV	1,749,034원
연극패협의회	1,387,346원

C. 총학생회 배정액 ; 102,188,646원

'97-2학기 학생회비 정산 내역

I. 총수입 163,488,000원

문과대학	2566명	25,660,000원
상경대학	2860명	28,600,000원
이과대학	1551명	15,510,000원
공과대학	4377명	43,770,000원
신과대학	232명	2,320,000원
사회과학대학	1288명	12,880,000원
법과대학	786명	7,860,000원
음악대학	578명	5,780,000원
생활과학대학	673명	6,730,000원
교육과학대학	566명	5,660,000원
의과대학	681명(60%)	4,086,000원
치과대학	332명(60%)	1,992,000원
간호대학	440명(60%)	2,640,000원
총 계	16,930명	163,488,000원

II. 총지출 163,488,000원

A. 단과대 배정 총액 ; 40,674,569원

문과대학	5,988,938 원
상경대학	5,436,509 원
이과대학	4,751,054 원
공과대학	6,586,936 원
신과대학	2,499,253 원
사회과학대학	3,740,513 원
법과대학	3,447,791 원
음악대학	2,704,328 원
생활과학대학	2,976,242 원
교육과학대학	2,543,005 원

B. 9개 기구 배정액 ; 29,296,866원

총학생회	5,914,697원
등아리연합회	10,652,359원
언론협의회	2,098,294원
응원단	2,259,647원
소나기	2,259,647원
예비역복학생협의회	1,280,515원
풍물패협의회	1,936,824원
연세TV	1,614,368원
연극패협의회	1,280,515원

C. 총학생회 배정액 ; 93,516,565원

₩178,052,000

1학기

₩163,488,000

2학기

문	₩6,514,071	3.66%		₩5,988,938	3.66%
상	₩5,895,806	3.31%		₩5,436,509	3.33%
아	₩5,148,239	2.89%		₩4,751,054	2.91%
공	₩7,147,501	4.01%		₩6,586,936	4.03%
신	₩2,710,057	1.52%		₩2,499,253	1.53%
사	₩4,055,403	2.28%		₩3,740,513	2.29%
법	₩3,737,731	2.10%		₩3,447,791	2.11%
음	₩2,930,494	1.65%		₩2,704,328	1.65%
생	₩3,224,546	1.81%		₩2,976,242	1.82%
교	₩2,758,103	1.55%	24.78%	₩2,543,005	1.56%
					24.88%

총여	₩6,408,512	3.60%		₩5,914,697	3.62%
동연	₩11,541,068	6.48%		₩10,652,359	6.52%
연합	₩2,273,352	1.28%		₩2,098,294	1.28%
응원	₩2,448,167	1.37%		₩2,259,647	1.38%
소나	₩2,448,167	1.37%		₩2,259,647	1.38%
예북	₩1,387,346	0.78%		₩1,280,515	0.78%
동합	₩2,098,411	1.18%		₩1,936,824	1.18%
통T	₩1,749,034	0.98%		₩1,614,368	0.99%
연합	₩1,387,346	0.78%	17.83%	₩1,280,515	0.78%
					17.92%

총학생회 ₩102,188,646 57.39%
I ₩71,563,000 40.19%

₩93,516,565 57.20%
₩71,563,000 43.77%

자체운영+특별공동예산

특별공동사업

QT	₩7,000,000
학생수첩	₩16,000,000
✓노수석추모제	₩11,000,000
4.19기념일	₩1,000,000
총장배체육대회	₩1,000,000
대동제	₩27,000,000
✓아한열추모제	₩6,000,000
농활	₩6,000,000
한가위귀향단	₩3,500,000
연고제	₩30,000,000
총장배체육대회	₩1,000,000
선거	₩6,000,000
졸업기념품	₩8,000,000
✓상층간부활동바	₩7,000,000
✓한총련분담금	₩12,626,000
소개	₩143,126,000

총학생회 특별 기구 심의 공고

'98년도 특별기구의 예산안을 배정하는데 앞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특별기구의 '98년도 예산안과 총학생회 특별기구의 인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1.시간 : 1998년 2월 23일 오후 5시
- 2.장소 : 총학생회실
- 3.내용 : 특별기구 계획안 검토, 특별기구 인준 및 예산심의
- 4.방법 : 작년도 활동 내역과 올해 활동계획, 예산계획안
별첨 문서와 같은 양식으로 제출
- 5.대상 : 작년 총학생회 특별기구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연합, 응원단, 소나기, 복합, 풍합, 연세TV, 연합)
작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 이월 단체 (연기연)
기타 총학생회 특별기구로 인준받기를 원하는 단체들

총학생회 특별기구 심의에 관하여 불참시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발제시간은 작년 활동계획과 올해 활동계획을 합쳐서 10분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총학생회실 (361-3640, 3641, 3643)으로 해 주십시오.

제35대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위상 문제, 특별기구들의 심의 문제

<김신현경 또는 오늘이가 제안합니다.>

98년도 학생회비 배정안 심의 일정은 함께 첨부된 총학생회 안에서 일정의 변동만이 약간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중운위자리에서는 총여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의 경우 다른 특별기구들과 위상을 같이 하여 중운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애기정도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다음주에 총학생회와 우리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가 함께 위상 정립 및 특별기구안을 내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안에서 명확한 안이 애기되지 않을 경우 함께 애기를 해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뼈뺏하고 힘든 오티 일정 속에서도 이런 논의를 해 봐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 배정도 신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두축으로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총여학생회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남들 개의치 말고 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생각들을 학생운동 진영에서 뭐라 하건 재미있게 풀어내자는 것이었지요. 별로 달라진 내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끝날 총여 아니고 여성운동 아니라면 나름대로 이전의 총여와 단절되는 지점, 여기에서 우리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산인상을 요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다들 동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대 실사를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게으름 탓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몇 단대 돌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단대 학생회들이 여성운동,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별 고민 없을 줄은 알았지만 우리가 현재의 학단위 여성운동에서 '분리주의'를 나름의 전략으로 사고한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는 우리만 봉 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 단체 모임을 가지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저 친분이나 아는 사람 찌르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단대 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가 가지는 위상과 같을 수 있는 나가 문제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중운위 한 표 정도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부단위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하리)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총여학생회 위상 및 학내 여성운동에 관한 발제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역시 이 부분에 관한 한 우리의 논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참고로 했으면 싶은 글을 첨부합니다. 두 글 모두 작년 '청년학생한마당'에서 제기된 글들이며 그 행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 써여진 글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감을 잡고 다소 촉박하게나마 뭔가를 요구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함께 글을 읽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위상정립요구, 예산 백서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구두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발제 : 이화 여성위원회

I.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운동

1. 80년대 한국여성운동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근대 남한사회의 여성운동역사의 주역은 7-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여학운세력에서 파생되었다. 여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세력들이 졸업 후 '결혼'이라는 일상적 과정을 통해 학생 시절에 겪지 못했던 기존의 운동 세력권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고, 또한 '주부'라는 여성의 억압된 삶을 몸소 체험하고 이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현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단위활동가들이다.

- 이렇듯 80년대의 여성운동은 그 시작에서도 읽혀지듯이 독자적 운동으로서 정치력을 갖지 못한 채, 전체 사회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의 위치를 점유하였으며, 운동주체인 여성들은 또한 독자적인 세력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즉,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역사는 80년대를 장악했던 중심운동(통일, 노동운동)에 밀려 그 정체성을 공고히 세우지 못한 채 90년대로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한사회의 여성운동은 서구에서와 같은 사회운동과의 조직적, 실천적 분리를 통해 독자적 세력으로서 투쟁해 온 역사가 부재한다는 큰 약점을 지닌다.

(1). 9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방향성 논의

- 90년대에 들어와 여성운동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공고히 하며, 가시화되었다. 이것은 90년대 사회운동 역량의 발전과 상황 변화, 운동영역의 다양화 등의 변화로부터 유발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문민 정권으로의 이행, 소비사회의 확산, 화이트칼라 계층의 급성장, 시민사회의 공간 확대 등의 상황은 탈산업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분위기들이 한편으로 여성운동을 사회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 그간 사회속에서 부유한 계층의 사치스런 불평이라는 부당한 인식이나, 사회 운동세력으

로부터 운동을 힘을 분열시키는 분리주의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받아왔던 열악한 지형속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주의'와 '여성의 독자적 세력화'를 표방하기를 우려하며 사회운동의 부문으로서 그 연결성 상에서만 정당화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점차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대중성 확보를 통해 독자적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92-3년 여연과 여협 양대 연합체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 94년 고용할당제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 95년 채용시 용모제한 반대활동,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활동, 성희롱 대책활동 등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슈아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성이슈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매진하였다.)

-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여성운동진영은 '여성주의'를 표어로 내걸기에 조심스럽다. (3.8 여성대회나 서울여성영화제에서 보여준 것은, 굳이 남성들의 손을 놓쳐선 안된다는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자세였으며, 급진적 학생운동진영에서는 정권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제 그 어느것보다 우선한 '여성주의'를 표방하면서 대중에게 다가갈 때이다. 7-80년대 사회운동이 '여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담보해내지 못했듯이, '여성주의'를 덧씌운 어떠한 '주의'도 억압으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을 가능케 할 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운동은 정당에 호소하는 식의 방식보다 기층의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더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단위들이 일상의 투쟁의 장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억압에 대한 투쟁은 여성들의 지지와 참여로만이 가능할 수 있다.

운동의 전략상으로도 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여성의 독자세력화'를 요구하는 분리주의적 방법론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1,2년 전부터 여성노동자회에서는 여성 독자노조 건설이라는 명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맥락을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이 역시 여성 노동자들의 노조를 통한 투쟁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남녀가 함께하는 운동의 한계를 체감하고 여성노동자를 위한 투쟁은 여성독자노조의 결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여성운동진영은 새로운 방법론의 고민에있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성억압의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이에 대응하는 운동의 방식도 그러해야 한다. 여성운동은 여성 삶의 전영역에서 여성이슈를 정치화시켜 내야 하며,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역시 다양한 전략이 따라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여성주의의 담론과 논의들을 통한 새로운 운동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사회 전반이 정보화의 물결 속에 휘말려 들어간 지금, 여성운동진영의 이 영역에 대한 대응책은 실로 미비하다. 점차 확장되어가는 운동의 영역들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다양성의 모색을 통해서만이 여성운동은 정당성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흐름을 조직화, 세력화하여 사회의 변혁의 주체로서 설 수 있을 것이다.

- 90년대 여성운동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은 운동조직간의 연대를 통한 활동을 힘 있게 전개해왔다. 여성운동단위들간의 여성이슈에 관련한 공통의 행보모색과 연대 활동은 이제 보다 대중적으로 다가서야 할 때이다. (학생운동진영과의 연대를 포괄하는) 또한 연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칫 방향을 잃게 되거나, 운동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요청되지만, 여성운동의 독자성 확보와 여

성의 세력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시급한 사안의 해결이라는 행동의 과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을 두고 각 단위간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태의 결정, 연대활동이 그 활동의 시작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II. 학생운동에서의 여성운동

- '여학생운동이 아닌 여성운동이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학에서의 여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중심에 자리한 통일, 노동 운동의 맥락에서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을 사고하였다. 학생운동의 기조아래(반자본, 반제국주의) 여학생운동이 그 기조를 같이하면서 여성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러했던 - 일이다. 그 방식에 있어서도 언제나 부문운동으로서 존재했던 운동들은 반자본, 반제국주의의 기조와의 연관성 상에서만,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권력쟁취 투쟁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만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 '여성주의'의 구호는 제대로 외쳐질 수 없었고, 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에 비해서 오히려 대학의 여성운동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III. 여성운동의 전략

전략적 분리주의의 영.

1. 분리주의에 대한 소고 -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1) 전체운동에서의 독자적 여성운동

(2) 여성운동 전략에 있어서의 분리주의 - '자매애'란 개념으로 등장한 여성운동의 전략 중의 하나로서의 분리주의는 남성권력사회에서 여성만의 공간과 공동체가 필요하며, 여성들만의 연대를 통한 운동의 흐름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대두되었다. 여성운동의 경험을 통해 여성운동가들은 운동의 전략으로서의 분리주의가 운동의 역사에 있어 필연적으로 요청되며, 큰 힘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현 한국사회의 여성운동사에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 현재 여성운동진영의 동향과 그 방향 제시

- '여성주의'로 다시 읽기

90년대 중반, 불과 1-2년 전에 시작된 대학 내 여학생운동 진영의 새로운 흐름이 일기 시작

하였으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흐름으로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흐름은 '여성주의'를 내세운 독자적 여성운동을 표방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학생 운동 진영 내에서의 분리주의와 함께 그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분리주의적 경향을 띤다. 이러한 흐름은 그간 여학운 단위에서 결합한 운동들 -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이나 기지촌 문제 해결 투쟁 등의 행동들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다시 읽어내는 과정을 모색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단계'이다. 기존의 행동양식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을 통해 비판, 분석해 내고 새로운 흐름을 잡아가는 것. 이 시대 여성운동의 중요 행동과제임에 틀림없다.

- 독자적 여성운동단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이들 단위들은 또한 '운동의 영역과 방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흐름을 형성해나아가야 한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들 단위들은 각 단위에서 문화제를 주관하는 등의 문화운동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남성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운동 방식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급진적 여성운동의 방향과 시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할 것이다.

✓ '자매애'를 강조하며 여성주의를 내세운 여성운동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여성운동 단위들간의 연대를 요한다. (대학 여성운동 단위들의 연대, 사회의 여성운동 단위들과의 연대, 그리고 여성학자들과의 연대 필요.) 새로이 여학운 단위에서 생겨난 여성운동의 흐름이 올해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를 결성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 학생운동은 급진성과 근본성의 특징을 갖는다. 현재 여성운동 단위들의 '급진적' 흐름은 이 땅의 여성운동사의 흐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성운동단위들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 급진성이 어떠한 맥락도 없이 떨어진 것은 분명 아니다. 여성운동단위들에 학생운동단위들은 하나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립적이어서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학생운동 단위가 지적받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원칙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인의 '원칙주의'가 자칫 탁상공론으로 연대의 힘을 소진시키는 학생운동의 과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대학의 여성운동사에서 범해선 안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등 등의 여성주의이론은 운동의 방식으로 다시 읽혀져야 한다.)

우선, 사회 여성운동 단위들의 활동에 대한 고찰과 인정이 필요하다. 학생운동사에서의 여성운동의 부재는 사회에서의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에 비하면 더욱더 연약하고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학생운동 안에서의 여성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만 비판을 가했을 뿐, 사회와의 연대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다. (이는 대학 여성운동이 그 급진성을 표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여학생운동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의 차이점들을 명확히 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오히려 사회 여성운동 단위들은 사안에 대해 어떠한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서 연대해 왔음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전략으로서의 연대의 모색에 있어 사회의 여성운동단위들의 활동이 우리에게 더 급진적인 면모를 제시하여 주는 것인지 모른다. 정신대 문제 해결 투쟁의 과정에서 여성운동 단위들은 말 그대로 연대하였으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파나 단위 자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운동하였다. 또한 정신대 문제를 통한 남북한 여성들의 연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통일을 바라보는 여성운동의 시각도 함께 존재해야 하며,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통일관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사회여성운동 단위들과 대학의 여성운동단위들과의 연대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기존의 사회단위들이 학생운동진영과 연대에 있어 권위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 대한 지적도 많다. 그러나 대학의 운동이 사회로 이어져야 함은 분명한 당위이며, 많은 시행착오를 감수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해야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주체는 사회여성운동의 전략을 배우고, 또한 이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사회여성운동단위들도 새로운 운동의 흐름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실천은 이론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 여성운동의 유일한 통로 - 총여학생회 건설과 이 시기까지의 운동전략

80년대 초반만 해도 학도호국단이라는 군부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에서 광범위한 대중투쟁에 의해서 학생자치권력의 학생회는 건설되고 학원안에서 가장 감위력한 대중활동 공간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대중자치조직 건설의 움직임은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화 연구모임들이 생겨나게 하였고, 87년초 대중운동이 활성화 되고 대중조직이 건설되면서 소모임적 여성운동단위들은 조직 구조의 전환을 시도한다. 즉 여학생 운동이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총학생회 체계로서는 이를 담보해 나갈 수 없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이다. 당시 여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변혁적 성격과 임무, 당시 여성들의 생활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목적의식적인 여학생운동주체의 활동과정을 통하여 여학생의 정치적 각성과 지도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② 여학생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이 계획, 집행, 평가까지 일관되게 담보되어야 한다.
- ③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조직적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사람들은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여학생회 건설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선 여성운동론을 정립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 조직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것, 다양한 모임을 확대 발전시켜 조직기초를 다지고 일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등의 조직내용을 준비하고 내용을 축적할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여기에 운동분리주의라거나 조직만능주의라는 등의 많은 비판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88년도 이후에 총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 대중자치조직으로 학생회가 자신의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총여학생회 또한 여학생 대중 자치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학생운동안에서의 독자적인 여성 운동단위로 존재하였다는 의미에서 총여학생회의 건설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성의 불명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학생 대중자치조직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동의 틀거리로 존재할 수 있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학생운동의 단일한 운동이 넘어 낡은 오류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며 언제나 중

심운동의 종속된 활동, 보조적 활동을 하게 된다. 총여학생회의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 그것은 총여의 위상자체를 흔들어 놓게 되는 암적인 요인을 잉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 대중자치 조직의 틀거리로써 존재하지 못하는 총여'와 '여성운동 단위가 꼭 총여학생회여야만 하는가'라는 현재적 문제제기는 총여제도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 학생회제도 자체가 학우대중의 자치조직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학우대중과 괴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학생회 중심노선에 입각한 발본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학생운동의 이념에서 배제된 여성운동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조국통일' '노동해방'이라는 핵심적 기치가 설명해 주듯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엽의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운동의 중심적인 사상이다.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학생운동의 절대절명의 진리로 위치하게 되고, 학생운동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대사회적인 투쟁들을 벌여나간다. 그러한 투쟁의 과정 속에 학생운동은 자신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과정은 학생운동의 이념을 '통일'과 '노동'이라는 단일함을 취하게 되며, 그 안에서 학생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타의 다른 운동의 영역은 통일과 노동이라는 운동에 종속되거나 부차적인(주변적인) 운동으로 취급받는다.

① 조국통일진영에서의 여성운동(전여대협의 운동을 중심으로)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 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전문 -

-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의 소비 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담당 주체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전여대협 김령 中 -

② 노동해방진영에서의 여성운동

적대적 모순은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된 목표와 이해를 가진 사회세력이나 계급간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적대적 모순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는 서로 대립하는 계급간의 관계, 즉 노자적대의 모순이다. 따라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계급투쟁과 사회혁명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반면 비적대적 모순은 생활조건에 있어서 근본적 목표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제계급이나 사회세력간의 모순이다. 비적대적 모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대립하는 측면이나 경향이 양극화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은 적대적 모순이 해결이 되면 교육활동에 의해, 모순을 야기시키는 조건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의해 점진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맑스주의는 비록 전유와 착취관계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지만 착취자나 피착취자의 성(gender)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언급할 수 없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맑스주의 분석은 노동과 자본간의 갈등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는 무성적(sex-blind)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식민지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 되어야만 여성의 자주성을 회복하여 여성해방을 이룰수 있다고 하는 관점이나 노자의 적대적 모순이 해결이 되면 여성억압은 점진적으로 소거되어 여성해방이 될 것이라는 관점은 오십보백보인 것이다. 즉 통일이 되면, 노동해방이 되면 여성억압은 사라질 것이라는... 존재하는 다양한 모순을 단일한 모순으로 소거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은 주변운동으로 위치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기 전까지, 노동해방이 되기 전까지 여성들은 자신에게 가해져오는 억압과 불평등을 감수해내면서 오로지 통일과 노동을 외쳐대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논리가 교수에게 강간을 당한 여학우가 학교명예를 운운하는 거대한 집단들에 의해서 또 한번의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운동의 이념은 여성운동을 주변적 운동으로 위치하게 한 부분과 성의 불평등함과 억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이론 또한 적합하게 분석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여성운동의 이론적 기반은 지극히 취약한 상태를 낳게 한 것과 여성운동 전략의 부재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운동의 현재

과거의 여성운동이 중심운동에 종속된 형태로 존재하였다는 것은 성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분석 부재와 여성운동의 독자적활동 부재 그리고 여성운동의 전략의 부재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는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 활동을 구축 할려고 하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성운동은 과거의 주변적이고, 종속된 활동으로 진행되어져왔던 잔재와 여성운동의 전망의 불투명 속에서 과도기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주변적인 운동형태로 사고하는 여성

운동진영과 전체 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 설정이 부재한 속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을 분리주의라 비판하는 진영이 존재하는 가운데 여성운동은 끊임없이 독자성과 고립성의 경계극기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지반이다.

(1) 여전히 여성운동은 중심운동으로 종속되는가? (전여대협활동 중심으로)

□ 정치 사상적 노선

-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봉건성 타파, 민족 의식 고취로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기치)
- 식민지 여성의 자주성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에 고민의 중심을 두던 전여대협의 활동은 자주적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정리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목표지점이 바로 '자주적 여성상의 구현'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상적 목표로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할 것을 내세운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평가)

□ 대중적 노선

- 50만 여학우의 힘 모아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 반미 반김 투쟁 전면화로 민족 자주권 회복과 민족 대단결 의식고취, 통일 조국 건설하고 인간해방 한 길로 달려가자 (기치)
- 평가 중 일부
정신대 투쟁 : 한계지점 - 김영삼 정권의 본질(사대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이라는..)을 폭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반김투쟁으로 이관어 가기에 애매한 지점이 많았다.

---- 2기 전여대협의 평가와 3기 전망 중 일부 ----

여성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자주적 여성상'을 구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주적 여성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의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하여 본다면 미제국주의 식민지인 남한은 민족의 자주성을 상실하였기에 남한에서의 운동은 상실된 민족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통일이라는 중심운동으로 여성운동을 주변적 위치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여성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여성억압의 기제 중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전통적인 성별이데올로기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공고화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은 순결한 육체와 순종적인 미덕 그리고 섹시한 아름다움을 지녀야만 하는 여성으로 만들고자 전통적인 여성상을 모든 여성에게 훈육하는 현실과 '자주적 여성상 구현'이라는 테제로 또 다시 여성을 대상화 시켜내어 동일한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 다른지 그 차별점을 찾을 수가 없다.

(2) 여성운동은 0 ~ 성정치는 100

과거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여성운동은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성의 모순에 대한 분석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들을 펼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한 운동은 현실에서 취약한 지반과 초보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학운안에서의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은 여성 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분리주의나 고립된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압혀지고 있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94년 성정치 담론의 급속한 확장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편견이 존재하였던 것과는 달리 성정치 담론은 높은 지지 속에서 급속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성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왜 성정치 담론은 대부분의 좌파 학생 진영에게 성해방의 확고부동한 위치에 자리매김 될 수 있었는가이다. <그렇다면 여성해방과 성정치 담론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이다> 어쩌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치 담론과 여성해방의 입장이 현실에서는 왜 그렇게 위치가 다르게 읽혀질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성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다. 성이 끊임없이 구조화, 제도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은 기존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조에서의 권력 관계는 성을 주조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사회구조 속에서 성의 모습은 파생된다. 성에 있어서의 약자, 성적소수집단은 성의 불평등과 억압된 현실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정치의 담론에서 말하고 있는 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은 성의 모습이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다는 의미이다. 즉 성정치 담론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과 여성해방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성의 모습이 사회구조에서 파생된다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성정치운동은 여성운동과 상이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성정치'담론의 다소 충격적인 등장(?)과 '성정치'라는 언어의 상징적 의미가 주는 효과로 인한 신선함으로 인하여 성정치 운동이 크게 위치지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성정치 담론은 성에 대한 문제점 환기이다. 즉 사적이고 급기시 되었던 성에 대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공론화 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로 인하여 많은 성정치 운동 단원들이 건설되고 동성에 인권운동⁵⁵⁾이 활성화되었다. 성정치 담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문제에 관한 여성운동과 성정치 운동이 상이한 위치를 점할 수 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8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되어 활성화 되었던 여성운동은 대중운동화 되지 못한 취약한 운동지반과 여성운동의 내재적인 한계로 인하여 90년대 침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성정치 담론은 기간 여성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읽혀짐과 동시에 여성운동에 대한 기존의 뿌리깊은 왜곡된 시각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에 대해 흔히들 시고하는 지반은 여권신장의 의미로 남성을 적대화 시킨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불만어린 투정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성모순에 대한 문제제기로 제기되는 운동이 아니라고 사고하는 것이다. 성정치 담론이 여성운동과 상이한 위치에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성의 불평등과 지배적인 가부장제 권력의 현실이 학생운동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 속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여성운동 단위

학생운동 안에서 기간에 배제되어왔던 여성운동은 90년대 초중반을 경계하면서 사회 구조속에서 파생된 성의 모순을 인지하는 가운데 학생운동 안에서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기는 '학생운동의 위기' 담론이 제기되었던 시기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진다. 학생운동 안에서 중심적인 운동구조인 학생회질서와 학생운동의 단일한 이념에 대한 문제

55) 성정치 운동과 동성에 운동의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정치 담론의 활성화 이후에 활성화된 동성애인권운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기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의 현실태는 여성운동의 독자적 활동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하여 총여학생회가 아니라 다양한 연대모임, 또는 위원회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 지금까지 전체적인 학생운동 사이에 하나의 부문운동적인 성격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성운동을 자체적인 전략을 가진 하나의 운동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생회 사업(새터나 대동제, 농활) 등에 자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문화제 등의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다.

--- 서울대 '관악 여성 모임 연대' 활동 방향성 중---

□ 여성자치 연합은 학내 다양한 여성관련 모임들이 만든 연합체이다. 여성자치 연합은 여성문제는 항상 사적인 공간(정치와는 거리가 먼)으로 치부된다는 현상에 집중을 하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의 형태, 새로운 운동의 방식을 고민하고자 만들어졌다. 여성자치 연합은 기존의 총여학생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사고한다. 총여학생회는 대표체로서, 위에서 하달되는 방식의 권력이겠지만 여성자치연합은 아래에서, 학우들 사이사이에서 권력을 사고한다. 즉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탄생되는 것이 여성문제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여성문제는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거나 여성운동이 다른 누구에 의해 대신 될 수 없다.

---- 연세대 '여성자치 연합' 자료집 중----

● 대학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여성운동은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활동들의 움직임이 활성화 되면서 나름대로의 활동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주변적인 운동으로 존재하였던 여성운동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독자적인 활동의 부재와 이론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취약한 운동지반안에서 막 태동하려고 하는 여성운동에 대해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의 통일된 사상적 지반(노동, 통일이라는 중심운동)을 통해서 여성운동에 대한 성급한 재단과 가치절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학생운동과 주변운동으로의 여성운동이 연대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미 모든 체계모노를 가지고 있는 학생운동이 여성운동과 동등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시덥잖은 일이었겠는가? 그래서 당연하게도 학생운동에 관심있는 여학생운동집단은 학생운동에 '복무하는' 부문운동으로서 역할을 외치며 고립되었다. 학생운동과 여성운동과의 보이지 않는 불신과 여성운동의 고립성의 문제는 과거 학생운동의 이념과 구조 속에서 잉태된 결과이다. 학생운동의 위기의 담론이 폭발되고 있고 학생운동의 새로운 순환을 모색해야 하는 현재 기간 학생운동 안에서 배제되었던 주변운동(여성운동)들의 활성화 과정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모색의 과정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여성운동단위의 독자적인 활동을 구축하라

기간 여성운동단위의 활동은 중심운동에 종속되어진채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여성의 억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 문제설정하에서 취하게 된 운동전략이었던 것이다. 즉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은 90년대 초반까지 여성억압의 원인을 독자적인 모순으로 파악하지 않고 전체운동의 변혁의 과제 중 하나라고 사고 하면서 전체운동 속에 종속되는 운동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현실은 대학사회에서의 여성운동의 현실과도 궤를 같이 하는 지점인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여성억압에 대한 독자 모순의 파악 속에서 독자적인 활동전략을 구축하려는 시점인 것이다. 대다수의 총여학생회가 대학사회의 여성운동 단위로서의 자기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나 자생적인 여성운동 단위들의 형성은 여성운동의 독자적인 활동의 흐름이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적인 활동은 끊임없이 여성을 주체화 시켜내는 과정 속에서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사회 안에서 가장 취약한 운동지반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운동은 더욱 더 독자화 되고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학생사회 안에서 취약한 운동지반을 형성한 원인은 여성운동 내부의 원인과 여성운동 외부의 원인이 '따로또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의 요인은 기간의 여성운동의 역사의 한계로 인하여 여성억압의 명확한 입장의 불명확함은 운동전략의 부재를 잉태하였고, 여성운동의 대중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불신으로 여성운동에 대한 가치절하를 해온 학생운동에게 존재한다. 학생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의미성들은 구조의 모순으로 파생된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몇 몇 소수의 불만투성이들의 개기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억압과 불평 등의 문제는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임을 여성운동 단위들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운동 단위들의 정체성 확립과 그 속에서 합의되는 여성운동 전략을 통해서 여성운동 단위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벌여내어야 하며, 그 독자적인 활동은 여성운동이 하나의 운동세력의 집단으로 존재함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지반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사회 안에서, 운동안에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